

해방기 조영출 시 연구

서영희*

|| 차례 ||

- I. 머리말
- II. 해방과 조영출의 이데올로기 선택
- III. 해방기 조영출 시의 전개
 - 1. 해방의 역사성과 의미 천착
 - 2. 부정적 현실과 신념의 표상화
- IV. 맺음말

【국문초록】

해방기 민족문학은 전 민족을 포용할 수 있는 문학을 지향하였으며 우리문학이 해결해 나아가야 할 역사적 과제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조영출은 해방의 감격과 해방시기의 부정적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자신의 이념을 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조영출의 문학은 모더니즘 초기부터 리얼리즘과 병존하는 현상을 드러내었을 뿐 아니라 서로 결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가 일제강점기에 보여준 모더니즘 속의 리얼리즘은 해방기 역사의 현장성을 통해 새로운 변모의지를 펼쳐 보이며 분명한 리얼리즘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는 구체적 현실을 매개로 하여 그것을 충실히 반영하고 폭로하였을 뿐 아니라 민족 역사의 진리와 미래를 드러내며 보다 진전된 리얼리즘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문학 자체보다 문학이 구현해야 할 시대적 현실과 목적의식을 강조하고 그것을 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 것이 조영출 해방기 시의 주된 특징이었다.

주제어 : 조영출, 해방기, 리얼리즘, 역사현실, 시적 실천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I. 머리말

해방기 3년은 정치·사회적 격변기였으며 많은 쟁점들이 제기된 시기였다. 이 시기는 좌·우를 막론하고 ‘민족문학건설’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으며 문학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던 시기였다. 해방기 리얼리즘 문학은 당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작품 속에 절실하게 반영하며 그것의 모순에 대해 비판하고 응전해 가는 태도가 나타나는 작품들을 지칭한다고 하겠다.

특히 시 장르의 시인들의 적극적인 현실참여로 문학적 실천의 문제가 구체화되어 나타났으며, 해방기에 모색된 무기로서의 시론과 서사지향의 시론은 리얼리즘 시에 있어서 시적 실천과 현실반영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로서 그 시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¹⁾

조영출²⁾은 해방의 감격과 해방기의 부정적인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자신의 이념을 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해방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을 매개로 하여 역사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문학 자체보다는 문학이 구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과 목적의식을 강조하였다.

조영출의 시는 모더니즘 초기부터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병존하고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당대 역사 속에서 문학의 역할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가 일제강점기에 보여준 모더니즘 속의 리얼리즘은 해방기 역사의 현장성을 통해 새로운 변모의지를 펼쳐 보이며 분명한 리얼리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해방기 조영출은 시보다 희곡장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것은 좌

1) 박용찬, 『해방기 리얼리즘 시 연구』, 『해방기 시의 현실인식과 논리』, 역락, 2004, 335면.

2) 본고에서 조명암이라는 필명 대신 조영출이라는 본명을 쓴 까닭은 해방기 <신문예>, <예술운동>, <문학> 등의 잡지에 대부분 필명이 아닌 본명으로 작품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과 문학활동을 통하여 연극의 강력한 대중적 환기력과 사회성 담보에 관심을 돌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방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의 시작품은 7편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시기 작품들은 총 134편에 이르는 조영출 작품에 있어 일제강점기의 모더니즘과 월북 후 북한 체제에 충실했던 작품들을 이어주는 과도기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조영출의 해방기 시 작품에 대한 연구는 윤여탁의 『모더니즘에서 리얼리즘에로의 선택-조영출론』³⁾이 첫 논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김용직⁴⁾과 김효정⁵⁾의 논문이 있다. 윤여탁은 모더니즘에서 리얼리즘으로 변화하는 조영출의 시세계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김용직의 조영출론은 3편의 시를 다루고 있는데 각 시편에 대한 해설정도에 그치고 있다. 김효정의 논문은 조영출의 시 전체를 개괄함에 있어 모더니즘과 해방기 및 월북 이후의 작품량과 질이 현저히 다름에도 해방기 작품에 무게를 두고 다소 편향된 시각으로 다루고 있었다.

본고는 이동순의 『조명암시전집』⁶⁾을 텍스트로 해방기 좌·우 이념 대립과 혼돈 속에서 자신의 이념을 실천해나간 조영출의 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 있어 작품 자체뿐 아니라 작품을 둘러싼 역사·사회적 배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영출 문학의 위치를 밝히고 해방기 한국 시사의 한 부분으로 이입시키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3) 윤여탁, 『모더니즘에서 리얼리즘에로의 선택-조영출론』, 『시의 논리와 서정시의 역사』, 태학사, 1995.

4) 김용직, 『조영출』, 『한국 현대 경향시의 형성/전개』, 국학자료원, 2002.

5) 김효정, 『조영출 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2.

6) 이동순 편, 『조명암 시전집』, 선출판사, 2003.

II. 해방과 조영출의 이데올로기 선택

조영출은 해방기를 기점으로 계급문학의 대열에 뛰어든다. 식민지 현실에 저항하던 그의 진보적 시정신은 해방기 참여했던 이념대립 속에서 좌익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면서 리얼리즘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전환되었다. 1930년대 조영출은 일제가 만들어 놓은 식민 도시의 병폐와 인간성 상실의 암담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조명하였으며 작품을 통하여 이를 고발하고 타개하고자 하였다. 당시 지배와 피지배의 조건 속에서 사회의 비합리적 측면에 대해 직접적으로 폭로하고 고발하는 양상을 보이며 보다 사회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표방하던 그의 작품은 해방시기 리얼리즘을 확보하면서 민족사의 급격한 변화를 담아내는 문학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그가 일찍이 모더니즘 시를 창작하면서부터 사회·역사현실에 민감하였으며 이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동시대 계급시가 보여주었던 투쟁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면을 받아들이고, 근대도시와 인간 삶의 본질에 관하여 탐구하였으나 그것을 실제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가 계급문학에 뛰어들게 된 것은 이러한 실천적 결어를 해결하고자 했던 한 가지 방법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는 당대 지식인 사회의 대세였으며, 사회주의 사상은 매우 민족주의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당시 지식인 대부분이 친일 전력으로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좌익 혁명가들은 해방 직후 공개적인 동경을 받으며 일본에 저항하는 투쟁의 영웅으로 그려졌다.⁷⁾ 따라서 사회주의자는 민족주의자의 모습으로 비추어졌으며 해방이라는 새로운 정국에서 조영출은 가장 진보적인 사상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또한 ‘만해문단’의 한 사람으로 그가 성장기를 보낸 건봉시는 당시 조선

7) 스킨라피노·이정식 공저, 한홍구 역, 『미군정기의 한국 공산주의』,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돌베개, 1986, 315면.

최대의 사찰로, 여기서 운영하는 봉명학교는 독립운동을 형상화한 연극을 공연하는 등 학생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데 앞장섰으며, 임란 때에는 유정이 근거지로 삼았던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곳이었다. 이러한 전통은 조영출뿐만 아니라 박설산, 조영암 등 독립운동을 한 선친에 의해 맡겨졌던 봉건사 출신 문인들의 세계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도적 같이 온 해방’⁸⁾은 조영출에게 남다른 것이었다. 자신의 친일 행위에 대해 변명할 새도 없이 닦친 해방의 감격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 행적을 점검하고 반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1930년 대 말에서 해방 전까지는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이 실행된 우리문학의 공백기로, 조영출은 1940년 12월, <인문평론>에 『淸風의 箱子』를 실은 후 시 작품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1943년을 전후로 2편의 친일시와 19편에 달하는 친일 가요시를 발표하였다.

이 시기는 조영출이 와세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결혼(1943년)한 시점으로 그는 예술가적 양심과 생존의 문제 사이에서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싱가포르가 일본에 함락(1942년)한 뒤로, 지식인들은 세계정세를 빠르게 파악하고 조선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조영출의 친일 작품 활동은 대중을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 방편으로 그의 가요시를 활용하고자 했던 일제에 의해 강제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자의적인 사상의 굴절에도 혐의를 두게 되는 것은, 문학 지식인으로서 민족의 미래에 대한 그의 불온한 전망에도 원인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출은 해방이 되자 곧바로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에 가입한다. 이후 그는 ‘조선문학가동맹’의 시부 위원, 연극 동맹의 부위원장을 지내며

8)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III』,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한길사, 1985, 268면.

기관지인 <문학>과 <예술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일종의 발 빠른 속죄의식이었으며, 내적 갈등을 극복할 대안이었다.⁹⁾

한편 조영출은 문학이 특별한 계급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문화적 자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500여 편에 상회하는 가요시를 발표하며 식민지 대중문화 발전에 커다란 공적을 쌓았다.¹⁰⁾ 모더니즘 미학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가요시 창작 활동을 통해 보여준 대중문화 활성화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해방 후 ‘조선문학가동맹’이 전개한 창작방법론 상의 현실주의와의 이에 따른 문학 대중화 운동의 노선과 이미 맞닿아 있던 것이었다.

조영출은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적 의욕을 그의 작품 깊숙이 반영하였으며, 1948년 8월 정치적 신념에 따라 월북하였다. 조영출의 월북은 일제 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종의 깊은 반성이었다. 가족들을 저버리고 월북을 감행하기까지 그에게는 민족적 양심과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신념을 고수하겠다는 의식이 강력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격동의 근대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숙명적 과정이기도 하였다.

덧붙여 조영출이 월북하던 시기의 정황을 살펴보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9) 노상래, 『한국문인의 전향 유형 분석』, 『한국 문인의 전향 연구』, 영한, 2000, 115면 참고.

10) 조영출은 일찍이 대중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 장르의 확장 문제, 문학을 통한 대중문화운동의 실천에 노력을 기울였다. 시 창작에서는 모더니즘 정신에 입각한 도시의 극단적 비극성을 보여주었고 있었지만, 가요시에서는 향토정서와 민중의 애상을 부각시키는 등 대중적 취향과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가요시는 모더니즘의 관념성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정신적 출구였으며, 소수에 의해 지배되는 문화 영역이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도 동등하게 기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조영출의 대중문화적 성격은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문화론을 연상시킨다. - Raymond Williams, *Resources of Hope*, London: Verso, 1989, 32~38면 참고.

남한에 이식된 서구식 의회 모델이 엘리트들의 정치참여를 가져온 것과 달리, 북한은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시작된 대의기구를 갖추고 있었다. 1946년 11월 북한은 인민위원회 대표를 뽑는 첫 선거를 치렀으며 선출된 대의원의 절반 이상이 농민과 노동자들이었다. 이는 당시 사회경제적 구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철저히 아래로부터 시작된 형태의 것이었다.¹¹⁾

또한 이 시기 북한은 권력구조와 정책노선이 분명해지면서 여러 체제들을 합법화해 나가고 있었다. 이에 반해 남한의 권력구조는 통합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국내 인사들과 미군정의 알력관계도 심각한 상태였다.¹²⁾ 작품을 통해 남한사회와 미군정에 강한 적의를 드러내 온 조영출에게 이러한 점들은 하나의 체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배경요인이 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영출이 간부로 있던 ‘조선문학가동맹’은 사실상 조선공산당-남로당의 정치노선과 일치하는 문화투쟁집단¹³⁾으로 그의 월북은 좌파조직 내부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다.

Ⅲ. 해방기 조영출 시의 전개

1. 해방의 역사성과 의미 천착

일제강점기 조영출의 시는 주로 근대 도시와 문명의 이면을 비판하는 단면을 보여 주었다. 당대 사회의 모순을 파악하는 적극적이고 안목 있는 진단과 작품 저변에 깔려있던 민족주의적 가치관은 해방 직후 좌파문학과 연결되면서 그의 문학적 행보에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모든 강물은 바다

11)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홍구 역, 앞의 책, 469~475면.

12) 위의 책, 468면.

13) 임현영, 「8·15직후의 민족문학관」, 『해방공간의 문학연구 I』, 태학사, 1990, 266면.

로 흐른다」는 <신문예> 창간호에 발표한 작품으로 조영출의 뚜렷한 시적 방향전환을 보여준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 백두산 우에 떨어진 빗방울이/ 바다로 흘러가
 는 그 이치를 아느냐/ 오, 동무여 조선인민이여// 우리는 서른 여섯 해 동안/
 무서운 악몽에 눌러 살아왔다/ 험 말을 못하고/ 쓸 말을 못 쓰고/ 우리 부형이/
 남편이/ 귀한 아들이/ 피흘린 몸으로 도라올 적마다/ 처참한 刑터에서 백골
 이 되어 도라올 적마다/ 이 원수가 누구냐고/ 소리쳐 울어 본 일이 있느냐/
 (중략) / 오호 이 치욕 이 울분/ 종로 한복판에서 누구나 다 한번 소리치고
 싶었으리라/ 일본아 조선을 내놓아라/ (중략) / 그러나 강물은/ 이 시각에도
 흐른다 바다로 바다로/ 오호 동무여 조선인민이여/ 우리도 흐르자 강물처럼/
 모든 흥분과 당파적인 싸움을 참고/ 역사의 地理를 따라/ 조선건국과 새조선
 의 행복이 물결치는/ 바다로 향해/ 흘러라

—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¹⁴⁾ 부분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는 낭송을 위한 작품의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서사지향 시는 소설의 구체성과 서사성을 채용하여 시가 가지는 관념성이나 추상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형태이다. 서사지향 시는 현장을 포착하여 현실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의 삶과 그것이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해방정국의 복잡한 현실에서 이러한 서사는 시적 울림을 가지며 구체성 확보라는 보다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는 해방이라는 민족적 대사건을 시에 도입하였다. 이 시를 필두로 조영출의 작품은 좌파 이데올로기, 곧 인민성을 작품의 뼈대로 삼게 된다. 해방은 감격 못지않게 일제가 남긴 상처와 일제 잔재 청산, 미·소 군정의 통치 등 자주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적 과제

14) <신문예>, 1945, 12.

를 좌절시킬만한 요소들이 가득했다. 조영출은 이러한 시대적 위기와 역사 현실을 자신의 인식을 통해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는 작품을 통하여 민족의 해방은 필연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방 뒤에 따라올 좌·우 이념 대립과 갖가지 사회 혼란상을 예견하고 있다.

해방기 현실에서는 시적 자아인 ‘나’ 보다는 집단적 화자 ‘우리’가 더 중요시되었다. 이는 개인의 감정이 집단의식으로 한 단계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라고 불리는 집단은 동지적 친화감과 연대감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우리’가 공유하는 삶의 양식이 위협받을 때, 위협의 대상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¹⁵⁾ 위의 시에 나타나는 ‘우리’도 나와 우리의 동일시라는 공동체적 친밀감을 통해 집단의식을 강화하고 적대적 대상과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있느냐’, ‘아느냐’ 등의 의문형과 ‘홀러라’, ‘호르자’ 등의 청유형은 인민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를 성취하고 말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오 동무여 조선 인민이여’, ‘오호 이 치욕 이 울분’ 등의 호격조사와 반복되는 영탄은 그의 모더니즘 시에서도 자주 나타났던 낭만적 수사를 보여준다.

‘강물처럼 물리는 인민의 발소리/ 누구나/ 종로 한복판에서 소리쳤다/ 보아라 저 떨어지는 일본 깃발을’에서는 쏟아져 나온 인파와 시인이 해방의 감격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서른여섯 해 동안/ 무서운 악몽에 눌러 살아왔다/ 험 말을 못하고/ 쓸 말을 못쓰고’와, ‘이 끊던 피가 치안유지범이란 그물에 걸려/ 용수를 쓴 동무들이/ 북망산천으로 갔느니라’, ‘일본아 조선을 내 놓으라’, ‘이 원수가 누구냐고/ 소리쳐 물어본 일이 있느냐’ 등의 직설적인 어투들은 평면구도로 전개되는 작품을 더욱 범용한 수준에 그치게 한다. 또 ‘그러나’, ‘그것은’ 등의 접속어 나열과 지시 대명사

15) 박용찬, 앞의 책, 288~294면.

의 사용으로 시적 긴장을 획득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이 작품은 많은 부분 내용주의와 이념성에 함몰되어 해방을 맞이한 내면 심리를 밀도 있게 포착해내지 못하고 시인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상투적인 수준의 작품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조영철은 이 작품을 통해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강물의 흐름으로 상징화하면서 민족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보여주고자 한다. 바다는 완전한 독립과 민족화합의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역사에 대한 시인의 낙관적 전망을 보여준다.

눈 쌓인 허허 별판/ 핏방울 흘리며 걸어간 발자욱// 세찬 바람 속에 쓸리는
 눈보라야/ 너는 이 발자욱 앞에 네 광란을 멈춘 일이 있었느냐// 오오, 슬픈
 압제의 밤은/ 가슴을 찢어 흐른 피에/ 사상이 꽃처럼 피다// 눈보라 속에 파묻
 힌 님의 눈동자/ 마음의 광채// 금줄 띄운 토방의 등불마다/ 강보의 어린 울음
 이 터져 울랐다// 님은 가고/ 여기 어린 생명은 살고/ 칼날이 선 울타리 속에/
 이 어린 목숨이 살아// 지금 오오 지금/ 이 슬픈 역사의 밤이 새다// 보라
 저 푸른 하늘/ 저 태극이 꽃힌 지붕을 넘어오는/ 흰 비둘기/ 붉은 태양// 오호
 붉은 태양야/ 슬픈 역사의 밤은 영원히 밝았느냐

— 「슬픈 역사의 밤은 새다」¹⁶⁾ 전문

「슬픈 역사의 밤은 새다」는 해방의 아침을 맞는 감격을 서사적으로 다루고 있다. 조영철은 ‘님’이 흘린 피의 대가로 얻게 된 해방을 새 생명 탄생에 대응시키며 순국선열과 해방 전사를 추도하는 진혼곡 형식의 작품을 보여준다. 해방 초기의 많은 시가 해방조국에 대한 환희와 낙관적 기대로 차있는 데 반해 조영철은 「슬픈 역사의 밤은 새다」를 통해 현실인식을 보다 냉철히 하고 있다. 이 작품은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와 같은 시기에

16) <예술운동>, 1945.12. 이 작품은 해방 기념 시집 『햇불』에 재수록 되었다. 『햇불』과 『연간조선시집』(1947, 3)은 강경한 계급의식, 새로운 사회건설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선동성이 강한 시편들이 실려 있다.

발표되었지만 한층 성숙된 시각을 보여준다. 지나친 감정 노출과 급박한 호흡을 조절하고 눈보라 속에서 죽어간 님의 덕으로 붉은 태양이 뜨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밝힌다.

‘보라 저 푸른 하늘/ 저 태극이 꽃힌 지붕을 넘어오는/ 흰 비둘기/ 붉은 태양은 빛나는 환희의 새 아침이다. 그러나 청, 홍, 백의 색채 이미지가 선명하게 제시될수록 눈(雪)과 피로 대변되는 과거와의 대비도 뚜렷해지며 시인은 지난날의 회한에 가슴이 사무친다. 또한 영탄조로 해방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그 감격이 단순한 환희의 찬사만이 아니라 슬픈 역사를 통해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성찰을 보여준다.

영탄과 색채이미지, 의문형의 수사는 일제강점기 모더니즘 시에서 보여주었던 조영출식 언어미학의 편린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는 인식은 마지막 행에서 시인 스스로 ‘슬픈 역사의 밤은 영원히 밝았느냐’라는 질문을 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협의된 신탁통치 문제로 온 나라가 술렁거리던 시기였다. 해방 직후의 환희는 곧바로 날카로운 역사현실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슬픈 역사의 밤은 세다』는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와 마찬가지로 행사장에서 낭송을 통하여 수용 주체인 청중들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격동기일수록 시는 청중의 감성에 직접적으로 호소하여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장르였다. 이러한 시들은 같은 시행이나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을 창출하고 과감한 생략과 뛰어넘기 기법 등을 사용하여 낭독에 편리하도록 쓰여졌다.¹⁷⁾ 조영출은 이러한 서사를 통해 작가의 주관적 체험의 한계를 벗어나 독자와 거리를 유지하며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고 있다.

17) 박용찬, 앞의 책, 295면.

2. 부정적 현실과 신념의 표상화

『총총이 배긴 별들아』는 조영출의 해방기 작품 중 현실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해방의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역사의 험로를 직시하는 시인의식이 작품 전반에 나타난다.

총총이 배긴 별들아/ 너는 조선의 별이다// 허나/ 이 푸른 밤에/ 바람은
 조용하고/ 골목 안엔/ 강도가 들어 담을 넘고// 그보다 더/ 무서운 총알이/
 피붉은 심장을 찾아 눈을 뚫으니// 어제처럼/ 옥에서 풀린 사람들이/ 다시
 미쳐야 하겠느냐// 별들아/ 오오 조선의 별들아/ 그렇게 높이 매달려만 있을
 게 아니다// 쏟아져라/ 눈부시게 쏟아지는/ 너희들 광채앞에/ 총알도/ 강도
 의 칼도/ 눈이 멀리라

— 『총총이 배긴 별들아』¹⁸⁾ 전문

2차대전 승전국으로서 미국과 소련은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다. 1945년 12월 27일 미·영·소 3개국은 본격적인 신탁통치체 제 수립을 위한 모스크바협정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좌·우 진영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두고 대립하였으며, 친탁 및 반탁운동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1947년 8월 말까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골목 안엔 강도가 들어 담을 넘고’가 암시하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경고이며 당시 미군정이 지배하고 있던 남쪽의 현실을 가리킨다. 군정이란 군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논의로, 갑자기 찾아 온 해방은 또 다른 외세를 불러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총총이 배긴 별들아』는 10월 항쟁¹⁹⁾ 직후에 발표된 작품이다. 10월 항

18) <문학>, 1946, 11.

19) 10월 항쟁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들의 요구는 쌀 공출 폐지, 토지개혁 실시, 노동자 처우개선 문제, 인민위원회로의 권력이양 등 절실하면서도 혁명적인 성격을 띤 것들이었다. 1945년 말까지 소련은 북한 전역을 장악하여 그들 이데올로기에 입각

쟁은 1946년 9·24 총파업을 지지하는 대구의 노동자들이 학생 시민들과 반미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인 사건으로, ‘조선문학가동맹’은 10월 항쟁을 계기로 문학의 대중화와 문학운동의 국면전환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해방기 시는 파업이나 데모 등을 소재로 삼아 사건 현장의 분위기를 독자들에게 속도감 있게 전달해 주고자 하였다. 해방기는 그 어느 때보다 투쟁의식과 분노의 정서를 독자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원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²⁰⁾

『총총이 배긴 별들아』는 10월 항쟁 후의 시의성을 잘 반영하여 동족 간의 분열과 갈등 양상, 외세에 대한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옥에서 풀린 사람들이/ 다시 미쳐야 하겠느냐’고 묻는 의문에는 혼란한 상황에 대한 비판과 이를 조장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공격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밤은 조영출의 모더니즘 시에서 빈번하게 쓰이던 소재로, 암흑으로 착색된 식민도시의 공간을 보여 주었다. 『총총이 배긴 별들아』 『슬픈 역사의 밤은 새다』 『한 자루 백목을 쥐고』 등에 등장하는 밤 역시 어둡고 암담한 해방정국을 나타내고 있다. 1연과 5연에 나타나는 ‘별’은 어두운 밤을 극복해 나가는 데 필요한 희망과 혁명의 상징이다. 그러나 높이 매달려있는 별은 진정한 해방의 길이 멀고 험난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별들을 향해 ‘쏟아져라’고 외치는 시인의 의식에는 승리에 대한 당위성과 새로운 역사

한 체제 개편을 완료시켰다. 이와 달리 남한에서는 무수한 정치·사회단체가 생겨났으며 좌익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군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었다. 남한의 혼란상은 갈수록 심해졌으며 이들은 반미투쟁에 민족주의를 적극 활용하여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배가시켰다. 9·24총파업과 10월 항쟁은 해방 직후의 혼란상과 모순이 민감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해방이 가져다 준 막연한 기대는 실제 현실과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돌베개, 1988, 74~78면

20) 박용찬, 앞의 책, 295면.

창조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

마지막 연 ‘눈부시게 쏟아지는/너희들 광채 앞에/ 총알도/ 강도의 칼날도/ 눈이 멀리라’에는 모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인의 예언적 언술이 나타난다. 그러나 과잉 에너지가 상당 부분 시를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 ‘강도’란 다름 아닌 미군정을 암시하는 것으로 좌파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조영출에게 미군은 반민족적 세력이며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날의 그 무수한 부랑카드며 깃발이며 꽃들은 지금 어느 창고에서 해를 못보고 있는가/ 불길이다 참으로 치미는 불길이 있어// (중략) // 눈발이 나릴 듯한 거리에 서서/ 본부로 쓰던 빌딩을 보는 눈이 왜 이리 뜨거울까// (중략) // 그 날에 그 행렬 앞에서 기를 날리던 친구란/ 참으로 그리운 친구다// 산을 넘어간 친구들/ 물을 건너간 친구들/ 이렇게 정다운 그 날의 거리도 없으려니 왜이리 눈발은 올려구만 하는가// 꽃이다 꽃 친구랑 다시 만날이 거리에서 꽃은 꼭 피리라

— 「그리운 거리에서」 부분²¹⁾

10월 항쟁 이후 1947년의 사회현실은 진보적 좌파 세력들에게 낙관적이지 않았다. 좌·우간 대립의 골은 깊어갔으며 좌파 조직원들은 수배, 검거되거나 활동이 위축되어 월북이나 입산을 선택하게 되었다. 1947년 2월에 발표한 「그리운 거리에서」 중, ‘산을 넘어간 친구들/ 물을 건너간 친구들’은 바로 당시의 현실을 보여준다. 「공화국」²²⁾에서도 10월 항쟁 이후 월북

21) <신천지>, 1947, 2.

22) 가을이 온다/ 이번에야/ 눈부신 공화국의 깃발이 설총 알았더니// 가을이 온다/ 그 날의 그 흥분과 찬란한 꿈과 노래와 거리로 거리로// 벅차게 흐르던 행렬 속에 이미 다짐되었던 행복의 꽃은 피기도 전에// 아아, 가을은 무슨 낮으로 오느냐/ 이렇게 가슴이 아픈 시절이 올 줄은// (중략) // 백만장자의 전설과 벼슬을 꿈꾸는 사람과/ 大韓帝國的 훈장이 횡행하는 지금 거리와 골목에/ 매춘부는 언제나 체비 같은 신사를 만나러 가는 줄 안다만// 청석골을 넘는 동무와 책을 파는 친구와 철문으로 가는 동무가 이렇게 많음은// 아아, 이 비분 속에/ 황토마루 북으로 뚝린 은행나무 행렬에 구름이 멈추

하거나 잠적한 조직원들의 현실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10월 항쟁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억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기 조영출의 시에는 ‘거리’, ‘부랑카드’, ‘깃발’, ‘행렬’, ‘피’, ‘불길’ 등의 시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그의 작품이 정치성에 강하게 매개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이다. 『그리운 거리에서』 중 ‘꽃이다 꽃 친구랑 다시 만날 이 거리에서 꽃은 꼭 피리라’, ‘행복의 꽃은 피기도 전에’ 등에 나타나는 ‘꽃’과 『공화국』에서 보여주는 ‘눈부신 깃발’은 이들이 열망하는 사회주의 건설을 상징화하는 기표가 되고 있다. 조영출은 이러한 시를 통해 세계를 대립적으로 파악하고 상대를 부정하는 정치 편향성을 보이며 한계를 드러낸다. 그는 이러한 작품을 통해 자신의 걱정을 분출한 후 제 1차 최고인민회의에 맞춰 1948년 8월 월북을 감행한다.

한자루 백목을 쥐고/ 나는 거리로 나섰다/ 살육의 총소리가 사무치는/ 어두운 이 남쪽 거리에// 나의 머리 우엔 총총한 별들이 빛나고/ 나의 발 밑엔 사랑하는 골목길이 밝힌다// 젊은 가슴에 혁명의 피 지니고/ 이 거리 벽보를 쓴 동무들/ 그 어느 감방에 그 어느 지하실에/ 이 밤을 저주로이 지새우는가// 내 오늘은 동무들 뒤를 이어/ 한 자루 백목을 쥐고/ 어두운 이 길목에 나섰노니/ 하늘의 수억만 별들이 옛 친구와 같구나// 이제 이 밤이 새면/ 이 거리 모든 사람들/ 내 백목으로 쓴 글씨를 보리라/ 벽마다 전선 기둥마다/ 흰 글씨가 아니라/ 붉은 심장의 외침을// 모든 사람들 가슴속에/ 붉은 정열의 폭풍을 일으키리라// 내 만일 백목을 손에 쥐인 채로/ 어느 길목에 쓰러지거든/ 아아, 이 거리 못 잊을 부모와 형제들이여/ 그때는 나의 눈동자에서 읽으시라/ 영광스러운 조국의 이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 「한 자루 백목을 쥐고」²³⁾ 전문

어 빗방울을 던지는/ 궁터 버들가지여/ 가을이 온다// 이번이야/ 눈부신 공화국의 깃발이 설줄 알았더니- 「공화국」 부분, 『연간조선시집』, 1947, 3.

1947년 7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좌익은 대대적인 검거선봉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은 도피책으로 입산과 월북, 지하로 잠입을 택하게 된다. ‘살육의 총소리가 사무치는/ 어두운 이 남쪽 거리’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 시인은 총 대신 백목을 쥐고 거리로 나선다. 총총한 ‘별’들은 현실이 밤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이 작품 역시 ‘거리’, ‘피’, ‘살육’, ‘총소리’, ‘혁명’, ‘벽보’, ‘감방’ 등 선동성과 정치성이 강한 시어들이 등장하면서 자신의 사상에 대한 굳은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붉은 심장’, ‘붉은 정열’과 같은 시각적 색채어들이 사회주의 건설을 향한 시인의 뜨거운 열망을 드러낸다.

조영출의 해방기 작품 중 『그리운 거리에서』 『공화국』 『한 자루 백목을 쥐고』 등에 등장하는 ‘거리’는 에너지가 분출하는 장소로 혁명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질서가 생성되는 공간이다. 변혁의 힘을 통해 역사를 흐르게 하는 이 ‘거리’는 상징적이며 동시에 실제적인 장소이다.²⁴⁾ 그러나 현실의 거리는 10월 항쟁의 잔영이 어른거리는 무력감을 일깨우는 거리로 남아있다.

시인은 한 자루 백목을 쥐고서라도 참된 민족해방의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혁명적 낭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승리에 대한 전망이 어두울수록 투쟁의지는 더 강렬해지고, 민족적 과제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영웅적 정신’은 민족의 위대한 로맨티시즘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해방 직후 ‘조선 문학가동맹’이 창작 방법으로 제시한 진보적 리얼리즘을 표방하는 것으로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내포하는 진보적 리얼리즘은 ‘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도 민족문화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10월 항쟁 이후

23) 이 시는 해방시기에 쓴 것으로 보이나 연도는 확실하지 않고 후에 <조영출시선집>에 수록되어 있다.

24) 나병철, 『정치혁명에서 문화혁명으로』,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166~171면 참고.

의 시는 분단이 고착화되어 가는 비극 속에서도 투쟁의지를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전망을 형상화해 가고자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 자루 백묵을 쥐고』는 시인의 의지가 어느 정도 체화되어 나타나면서 시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한 자루 백묵이 가지는 상징성은 총이나 칼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도구의 힘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마지막 연의 선동적인 구호가 서사를 단순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전달효과에 집착한 시들은 오히려 프로시 본래 목적과 배치되어 청중들의 의욕을 상실시킬 만한 약점을 내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작가의 의도가 숨겨질수록 예술적 효과 측면에서는 뛰어난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예라 할 것이다.

소재와 주제의 적극성에 비해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시는 사회·역사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지나친 시적 수사와 감상성을 보여주었던 그의 일제강점기 모더니즘 작품과도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는 부분²⁵⁾이라 하겠다.

IV. 맺음말

해방기 리얼리즘 문학은 현실과 직접적인 대화 관계 속에서의 산물²⁶⁾이

25) 흔히 관념주의가 탈현실주의적 방식을 취하는 데 비해 조영출의 시들은 식민지 및 해방기의 부정적 현실에 기초한 관념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의 시가 식민지 사회 현실을 제재로 하면서도 추상성, 관념성을 띠었던 것은 시 창작 과정에서 예술절대주의적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작가의 높은 상상력과 건실한 이상성을 보증’하고자 했던 조영출의 해방기 시는 비극적 상황 아래 미래를 낙관하고 찬양하고자 한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창작 방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는 조영출 자신의 문학적 담론의 실천이었으며, 비극적 현실을 역으로 강조하고자 한 그의 시적 전략이기도 하였다.

26) 박민수, 『한국 현대시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한국 현대시의 리얼리즘과 모더니

었으며 그것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미래에의 전망을 전제로 한 실천적 몸짓이었다. 따라서 리얼리즘 시에서는 창작기법 못지않게 현실인식과 시적 실천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항목이라 하겠다.

일제강점기 모더니즘 시에서 보여주었던 역사와 사회 공동체를 강조하던 조영출의 시 정신은 해방기의 현실을 문학 속에 실현하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조영출의 시는 해방의 기쁨과 민족사에 대한 전망을 밝히면서도 고통의 역사를 통해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해방의 역사성과 의미에 천착하고 있었다. 또한 문학이 구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강조하며 10월 항쟁 이후의 격동기 속에서 암울한 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투쟁해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해방기 조영출의 시는 시적 기교나 수사, 주관적 정서의 재현보다는 현실적 과제와 인민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를 지향하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문학 본연의 창조적 형상화에 작용하는 상상력의 세계나 인간의 깊이 있는 삶에 대한 천착²⁷⁾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의 시는 정치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선동시, 기념 행사시, 서사 지향의 경향이 짙었다 또한 감정의 과다노출, 사회적 투쟁의지를 강조하면서 좌익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과제에 치우쳐 민족 통합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당대 현실의 총체성을 묘파하는 데 실패하였다.

조영출은 일제강점기에는 모더니즘 시와 가요시를 썼으며 해방기에는 리얼리즘 시와 연극운동으로 발을 옮겼다. 일제 말기에는 친일 작품을 다수 발표하였으며 분단체제가 고착된 시기에는 사회주의를 선택하는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영출 문학은 그의 저변에 내재되어 있던 여러 요소들이 격변하는 역사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표출된 것이

증], 1996, 10면 참고.

27) 윤여탁, 『해방정국 <조선문학가동맹>의 시단형성과 시론』, 『시의 논리와 서정시의 역사』, 태학사, 1995, 76면.

라 할 수 있다.

해방시기 좌·우익 대립과 문학적 요건들은 오늘의 분단 현실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민족역사의 모순을 인식하는 필수적 전제가 되고 있다. 조영출의 해방기 리얼리즘 시들은 분단 현실에 매몰되어 그의 모더니즘 시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평가를 받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역사적 격변의 현장에서 걸어 올린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학주의적 시각을 떠나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동순 편, 『조명암시전집』, 선출판사, 2003.
 <신문예>, <예술운동>, <문학>, <신천지>, <연간조선시집>, <조령출시선집>

2. 논문

김승철, 「미군정의 구조와 성격」, <녹두서평>, 녹두, 1986.
 김효정, 「조영출 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2.
 서영희, 「조명암 시 연구 - 모더니즘적 특성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2007.
 이동순, 「조명암 문학의 복원과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 42, 한민족어문학회, 2002.

3. 단행본

권영민, 『한국민족 문화론 연구』, 민음사, 1988.
 김남식, 『남로당 연구』, 돌베개, 1984.
 김영민,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소명, 1999+.
 김용직, 『해방기 한국 시문학사』, 민음사, 1989.
 _____, 『한국 현대 경향시의 형성/전개』, 국학자료원, 2002.

-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출판부, 1989.
- _____ 외,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 _____ 편, 『해방공간의 민족문학 연구』, 열음사, 1989.
- _____, 『해방공간 문단의 내면풍경』, 민음사, 1996.
- 김윤희, 『한국노동운동사 I』, 청사, 1982.
- 김준하·김창순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5』, 청계연구소, 1986.
- 김진기 외, 『문학으로 사회읽기』, 박이정, 2003.
- 김철,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 김혜니, 『한국 근대시문학사연구』, 국학자료원, 2002.
- 나병철, 『근대성과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1995.
- _____,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 노상래, 『한국문인의 전향연구』, 영한, 2000.
- 민현기, 『한국 현대문학 비평론』, 새문사, 2004.
- 박민수, 『한국 현대시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국학자료원, 1996.
-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사』, 돌베개, 1988.
- 박용찬, 『해방기 시의 현실인식과 논리』, 역락, 2004.
- 백낙청,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창작과비평사, 1984.
- 백운복, 『한국현대시론사연구』, 계명문화사, 1993.
-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I』, 한길사, 2004.
- 윤여탁, 『시의 논리와 서정시의 역사』, 태학사, 1995.
- _____, 『리얼리즘의 시정신과 시 교육』, 소명출판사, 2003.
- 이우용 편저, 『해방공간의 문학연구 I』, 태학사, 1990.
- 임영천 편, 『해방기 문학과 비평담론』, 다운샘, 2005.
- 임현영, 『분단시대의 문학』, 태학사, 1992.
- 최유찬, 『리얼리즘 이론과 실제비평』, 두리, 1992.
-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한길사, 1985.
- Marx, K. & Engels, F. 김영기 역, 『마르크스 엥겔스의 문학예술론』, 논장, 1989.
- Robert A. Scalapino 외,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돌베개, 1986.
- Raymond Willims, *Resources of Hpe*, London: Verso, 1989.

Abstract

A study on Cho Yeung-Chul's Poem in the Period of Liberation

Seo, Young-Hee

The national literature in the period of Liberation sought to embrace all nation, carrying out the historical task it commissioned itself to solve out.

Cho Yeung-Chul, with the joy of independence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expressed his strong desire for and ideas of a sovereign nation, while criticizing the destructive reality of the times in his poetry. In his early works written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elements of realism and modernism coexisted and were combined together. With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however, realistic elements in his modernist poems took a definite shape of realism through the historical reality of the Liberation period. The specific reality of the times was scrupulously observed and criticized in his poems in which the poet sought to show the truth and the vision of the national history, advancing further in his realism. Cho's realism, in this respect, was a means of expressing his belief in socialism and nationalism emphasizing the historical reality and goal that should be embodied in literature, rather than literature itself.

Key words : Cho Yeung-Chul, Period of Liberation, Realism, Historical reality, Poetic practice

서영희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214번지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53)810-2110(학교), 011-823-8007

전자우편 : munji64@hanmail.net

이 논문은 2009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09년 6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09년 6월 16일 게재 확정됨.